DAOL 다올투자증권

Market Weekly

check ME up!

Macro

Event

2025년 11월 3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Ⅰ. Weekly Review *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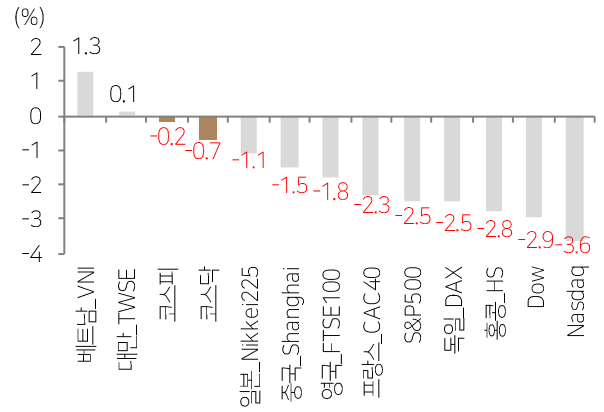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3p*

Ⅲ.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Ⅳ.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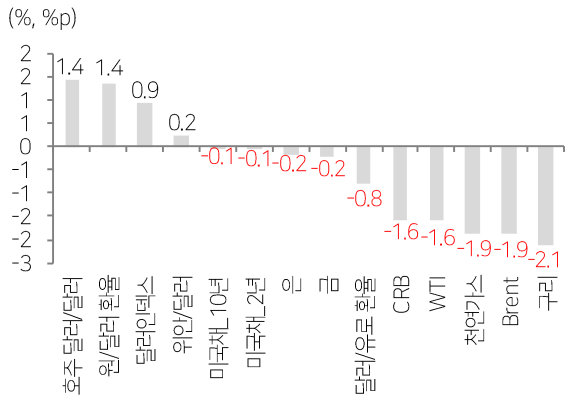
I . Weekly Review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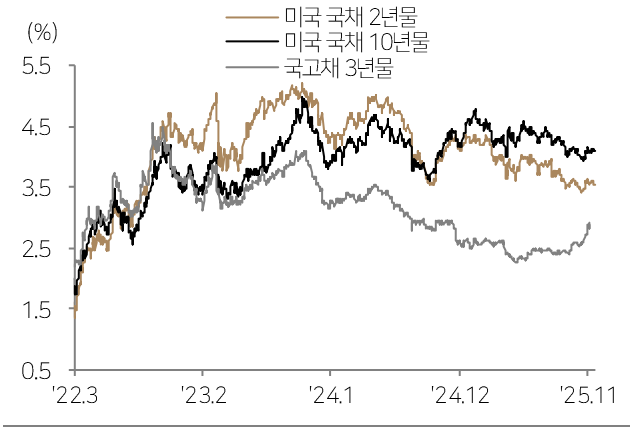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11/14일 대비 11/20일 종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FICC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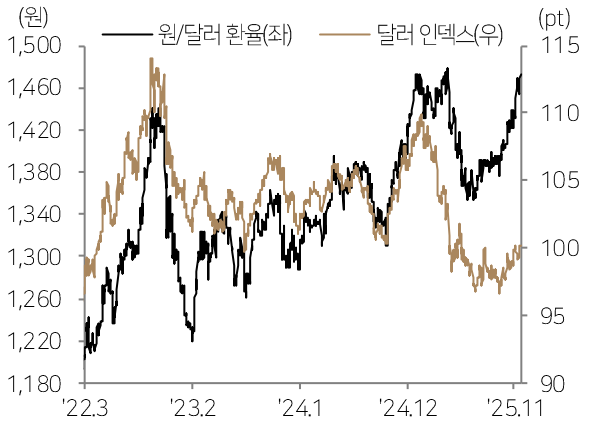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11/14일 대비 11/20일 종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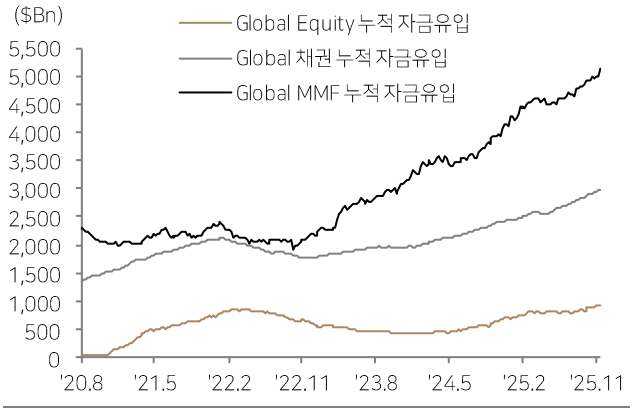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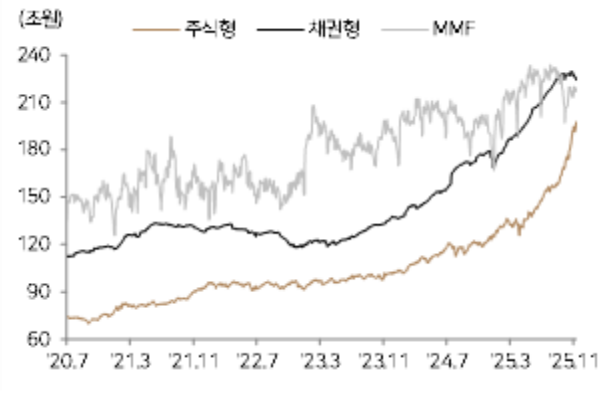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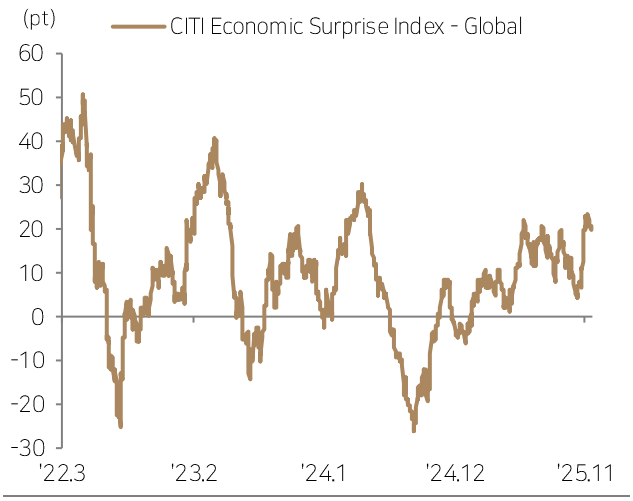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 미국 셧다운 해소 후에도 주요 지표들의 발표 일정은 여전히 불확실. 민간, 심리지표들은 발표가 되고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참고하게 되는데,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심리지수가 예정되어 있음. 먼저 발표된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가 90년대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가운데, 고용에 대한 반영도가 높은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까지 빠른 하락을 시현한다면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심리가 깊어질 수 있음
- 최근 중국 증시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4분기 정책 측면에서 모멘텀 발생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신용창출도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중국 PMI도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기준선을 하회 중. 부진한 지표와 함께 보통 12월 상반월에 진행되는 경제공작회의에서의 정책 기조를 확인할 필요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5-11-24	미국	10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Index	-	-
2025-11-25	미국	11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	Index	-	-5.0
2025-11-25	미국	9월 FHFA 주택가격지수	%mom	-	0.4
2025-11-25	한국	11월 소비자심리지수	Index	-	109.8
2025-11-26	미국	1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Index	93.3	94.6
2025-11-26	미국	10월 미결주택매매	%mom	-	0.0
2025-11-26	미국	3분기(2차) GDP	%qoq AR	-	-
2025-11-27	미국	10월 개인소득	%mom	-	-
2025-11-27	미국	10월 개인소비지수	Index	-	-
2025-11-27	미국	10월 PCE 물가지수	%yoy/%mom	-	-
2025-11-27	미국	10월 근원 PCE 물가지수	%yoy/%mom	-0.3	-
2025-11-28	일본	10월 실업률	%mom	2.5	2.6
2025-11-30	중국	11월 제조업 PMI	Index	-	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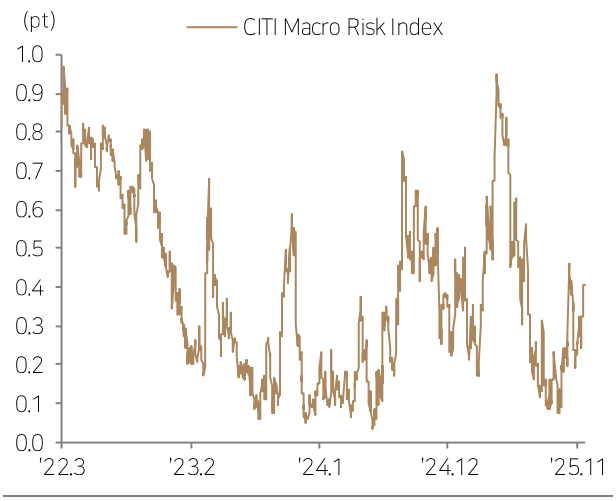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11/27	미국	중	연준 베이지북 공개	▪ 셧다운 여파로 고용지표가 확인이 되지 않아 FOMC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 각 지역 연주에서 경기 판단에 대한 내용이 평소보다 중요할 수 있음 ▪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타날 경우, 12월 FOMC의 선제적 금리 인하 결정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11/27	한국	상	금융통화위원회	▪ 당초 11월 인하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이창용 총재의 "방향 전환" 발언에 동결론이 우세. 시중 금리도 이 부분을 가격에 반영 ▪ 환율 부담, 생각보다 견조한 수출 등은 한은의 보수적 결정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단, 금리 동결 가능성이 사전적으로 금리에 반영됐고, 인터뷰 당시와 같은 매파적 발언을 재확인할 가능성은 낮다는 측면에서 동결 추가 충격을 유발하진 않을 듯
11/28	미국	중	블랙프라이데이	▪ 미국 연말 소비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온·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의 대규모 할인 행사 진행. 월마트, 아마존, 타겟 등 주요 소매 기업들의 초기 판매 실적을 통해 미국 소비 심리의 강도 측정 가능 ▪ 지난 해 4분기(트럼프 당선 이후) 소비 시즌 동안 내구재 소비의 급증이 나타났던 바 있어 그 반작용이 나타나는지도 확인할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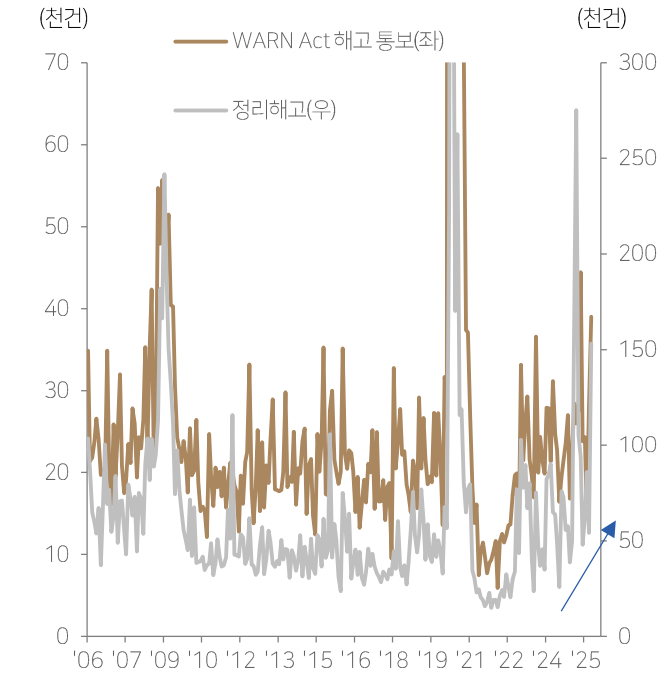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일자	내용
금주 (11/17~11/20) 증시 동향	▪ KOSPI(-0.2%), KOSDAQ(-0.7%) 하락. KOSPI는 호텔,레저서비스(+10.9%), IT하드웨어(+6.1%), 화장품,의류,완구(+3.9%)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증권(-5.3%), 보험(-5.2%), 디스플레이(-4.3%) 업종 하락. 버크셔의 알파벳 매수 소식에 상승 출발했으나, 피터 틸의 엔비디아 매도 등 AI 버블 우려속 외국인 매물이 출회되며 4,000선 붕괴. 이후 엔비디아 호실적에 우려가 다소 해소되자 반도체 랠리 재개, 조선·화장품 등 개별 호재 업종이 동반 강세를 보이며 4,000선까지 회복 마감 ▪ DOW(-1.4%), S&P500(-1.4%), NASDAQ(-2.0%) 하락. AI 칩 감가상각 우려와 실적 경계감, 연준의 매파적 기조 및 소비 둔화 우려가 겹치며 약세 흐름 지속. 이후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 AI 수익성 의구심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재부각되며 기술주 주도하에 하락 마감.
차주 (11/24~11/28) 증시 전망	▪ 엔비디아의 실적발표 이후 미국 빅테크와 AI 관련 밸류체인이 회복 시도가 있었으나, 아직은 여의치 않은 모습. 실적발표를 통해 산업의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투자를 진행하는 주체들의 자금 조달과 관련된 경계심이 남아있는 만큼 12월 FOMC까지 여진이 남아있을 수 있음. 미국 증시 심리지표 Fear&Greed가 전일 6pt까지 하락해 지난 4월 저점 3pt에 근접. 즉, 이미 불안심리는 클라이막스 부근까지 도달하고 있다는 의미 ▪ 빅테크 및 AI 관련 불안감은 결국 국내 증시에도 기존 주도주의 변동성 확대로 연결되는 명제. 12월 초까지 높은 변동성 영역일 가능성을 상정한다면, 통신, 음식료 등 방어적 성향의 업종의 매력도가 단기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판단. 그러나 연준 통화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확신이 제고될 경우 기존 주도주의 주도력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종가 대비 금주 목요일 종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Ⅳ. Key Chart & 핵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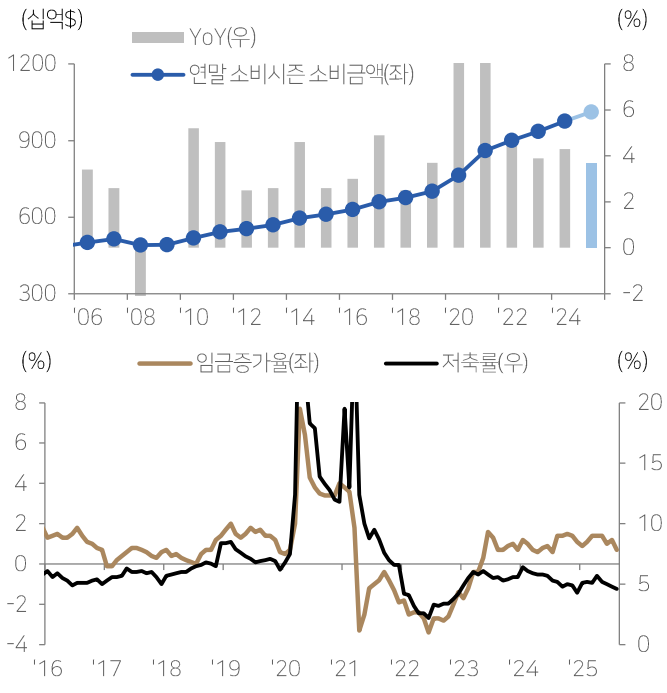
정리해고 및 해고 예고 건수의 추세적 증가가 확인 중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셧다운 해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 확인 시점은 불분명. 결국 민간 부문의 지표 등의 추이를 보다 면밀히 살피면서 가늠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최근 미국 대기업들의 정리해고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클리블랜드 연준이 집계하는 대기업 정리해고 사전예고통보 건수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10월 말 3.9만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5월 4.4만명에 이어 21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
- 챌린저 레포트에 발표되는 월간정리해고 건수도 10월 15.3만건으로 코로나 이후 두 번째 높은 수치. 변동성이 큰 지표들인 만큼 월간수치 자체보다 평균적으로 우상향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
- 한편, 챌린저 리포트에 발표된 산업별 정리해고 건수를 보면, 2025년 YTD 기준으로 DOGE 특수성이 있던 공무원을 제외하면 테크 산업에서 가장 많은 해고가 기록됐다는 점도 특이사항. 해당 산업은 투자자금이 가장 활발히 유입된 분야였음에도 가장 많은 정리해고를 기록

코로나 이후 최저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는 연말 소비 시즌, 그리고 약화되는 소비 여력



Source: Quantiwise, 다올투자증권

-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미국의 연말 소비시즌이 진행됨. 미국 리테일 협회(NRF)에서는 연말 소비시즌 매출에 대한 서베이를 발표하는데,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1조$대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전년 대비 증가율은 3.7~4.2%로 제시되고 있어 중간 값 수준으로 확정된다면 코로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 크게 임팩트 있는 소비시즌으로 보긴 어려울 듯
- 한편 소비의 재원인 임금이나 저축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동향이 형성되고 있음. 미국 전년 비 임금 증가율이 하락 곡선을 형성하기 시작했으며, 연 중반 이후 저축률도 뚜렷하게 낮아지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음. 앞서 살펴 본 고용의 둔화와 맞물려서 향후 소비와 관련된 모멘텀이 둔화될 여지를 시사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음
- 결국 고용이나 소비 같은 지표들을 고려할 때 미국도 경기 하방을 지지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들이 이어질 유인은 있는 것으로 판단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영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